

“성균色”, 인성을 찾아서

2019 학년도 제 /학기	과목명: 성균논어 04	담당교수: 윤민향	검인
문과 대학 국어국문 학부(과, 전공)	성명	한글: 이찬수	한자: 李燦周
학년: 2 학번: 201834413			

시험 문제: “士不可以不弘毅，任重而道遠. 仁以爲己任，不亦重乎？死而後已，不亦遠乎？” 『논어』 「태백」 선비는 도량이 넓고 뜻이闊해야 된다. 책임이 무겁고 길 길어 멀기 때문이다. 仁을 자신의 임무로 삼으니 무겁지 아니한가! 죽어서야 끝이니 멀지 아니한가! 위 구절에서 제시된 임중도원(任重道遠)의 의미를 바탕으로, 대학생으로서의 책무다 실천 방안을 논하시오.

임중도원(任重道遠). 책임은 무겁고 길 길은 멀다. 원로의 맥락에서 생각하면 '책임'이란 넓게 말해 '인(仁)'을 과업으로 삼는 것이고, '길이 멀다'라고 한 이유는 그것이 평생의 과업에 대응될 것이다. 그렇다면 '인(仁)'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인간을 사랑하는 것, 자신이 원치 않는 비를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 화와 공명을 실천하는 것 등으로 공자는 인(仁)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쟁점들은 집약되어 군자, 내지는 대인으로 불리는, 윤리에 있어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표상된다. 그러나 우리가 '성인남자'라는 말을 아무에게나 남발하지 않듯이, 군자의 상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 방법을 알면서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을 실천하는 것은 실로 중(重)한 일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대학생들에게는 현실적으로 — 인(仁)의 실천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 무게를 많이 더 있다. 학업, 그리고 취업. 청년 실업이 시대의 문제로 떠오르면서 취업은 점점 더 어려운 것이 된다. 차라리 인을 실천하는 쪽은 그 길이 멀지라도 어쨌건 그 길은 가시적이다. 그러나 취업에 대해 생각해 보면 그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생각했을 충분한 여유도 없게 된다 — 그렇기에 길을 찾아가는 한다면 감지덕지이고 — 조금이라도 내가 더 원하는 길(즉 다른 많은 사람들도 원하는 길)이나 평탄한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무한한 경쟁을 감수해야 하고 드물지 않게 현실과도 타협해야 한다.⁵⁰⁰

아제 막 전공에 진입한 입장에서 취업에 대해 논하는 것이 조금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무지한 관탄으로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만약 내가 일반 사기업에 취직하고자 한다면 나는 아마도 취업시장에서 가장 불리한 유형의 인간 중 하나일 것이다. 비성경계열 윤리에, 그 흔한 토익점수도 없다. 대외활동 경험도 전무하다. 사회가 요구하는 수많은 '스펙'에 불만을 호소하면서도 필요한 것들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 눈에 선하다. 그런데 여기서 '스펙'이라는 단어에 대해 문제삼고자 한다. 본래 '스펙'이란 말은 '사양'을 뜻하는 영단어 'specification'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 사람 스펙이 어때?"라는 말은 곧 "그 사람 사양이 어때?"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사람과 사양이라니, 어쩐지 어색한 관습이다. "그 노트북 사양이 어때?" 이 편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쓰임으로 보인다. 스펙이라는 단어를 사람과 묶어 사용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인간을 기계화, 부품화시키는 위력을 지닌다. '기계같은 인간'하면 비록 조금 인간미 없이 보일 하지만 일을 빠릿빠릿하고 완벽히 해내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기 쉽상이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지난 12월, 중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했던 고 김용환 씨의 사망사고, 그리고 며칠 앞을 두 달 뒤 아뿔싸¹⁰⁰⁰ 당진의 현대제철에서 발생한 50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 인간이 부품 취급받는 사회에서 그려지는 바늘들이다. 기계는 점점 인간을 닮아가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간 역시 기계가 되어간다. 서로를 향해 수렴해가는 현상이 결국 인간의 인간성 소실에 기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인간다움을 논할 수 없는 사회에서 단지 현실에만 적응해서는 안 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 이제서 인간다움을 사유할 일종의 인간의 특권을 포기하고 기계가 되기로 마음먹었는가, 태 우리는 가장 짧은 삶을 사양 한 줄 늘리기에 급급해야 하는가. 한 가지 짚고갈 것은, 결코 우리들의 노력을 절하하거나 그것을 그만두라고 말할 의도는 전혀 없다. 다만, 능력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사람다움에 대한 부단한 질문과 사유의 과제가 필요함을 말하고 싶다.

나조차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입장이니, 그나마 덜 막막한 것은 앞서 인간다움에 대해 생각의 끈을 뉘어놓은 성현들이 있기 때문이다. 『논어』의 「향당」 편에는 공자가 자신의 마구간에 붙어 난 것을 알고도 말(재산)에 대해서는¹⁵⁰⁰ 묻지 않고 "사람이 다쳤느냐?"라고 물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그런 공자의 인행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지 않고 책에 실려 25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해오는 것을 보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의 본질적인 문제는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느낀다. 그렇기에 논의를 공허한 것(물론 비판적인 수용이 요구된다.)은 충분히 사대에 부합한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인, 혹은 이미 현실화된 '4차 산업혁명'의 맥락 속에서 인간에 대한 사유는 더욱 유의미하다. 흔히들 '4차 산업혁명'하면 인간을 쓸다못해 주물레바퀴 기계에 의해 세물라도 인간의 모습을 떠올려본다. 그 거대한 '제 4의 물결' 속에서 공자는 기계에 자리를 빼앗긴 인간들이 설 자리를 찾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 인간만이 가진, 기계라는 구별되는 색을 찾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기에 대학생으로서, 특히 인문학을 공부하는 대학생으로서 인(仁)으로 화기할 수밖에 없고, 인문학이 받는 모해(지식인의 특권처럼 여겨지는, 삶에 어떤 실력(實力)도 미치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혹은 사치라고 여겨지는)를 씻어낼 의무가 있다.

책임은 무겁고 길 길은 멀다. 그러나 인간다움에 대한 짧은 사유로 시작된 먼 길위의 첫 걸음은 비록 느리나, 질문 없는 전력질주보다 결코 뒤처지지 않을 것임을 믿는다.²⁰⁰⁰